

김정학씨 농장을 찾아서

사료효율 1.87 대기록

〈취재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이곳 동쪽 야산 밑에는 김정학(54)씨의 농장이 아늑하게 위치해 있다. 육계업의 영세성을 탈피 못한 여느 농장과 다를 바 없는 12동의 파이프 하우스계사로 이루어진 육계농장이다.

수지면에는 100여가구의 육계농장에서 70만수 정도가 사육되고 동천리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지역적으로 위치가 좋으며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어 어느 곳보다도 입지조건이 좋아 15가구에서 육계업을 하고 있다.

기자가 농장에 도착하니 김사장 내외분이 반갑게 맞이 해 준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파이프하우스 계사가 시야에 들어 왔다. 하우스 안에는 닭대신 꽃과 관상수 등 화훼로 전업한 농가가 많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경이적 수치 1.87

그런데 기자는 김사장이 제시하는 사료효율 1.87이란 경이적인 수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늘 우리 생활은 수치의 놀음이지만 브로일러에서 사료효율 1.87를 기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연간 8억달러 이상 비싼 외화를 주고 사료곡물을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비취보

면 한톨의 곡물이라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우리로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사료효율이 아닌가 사료된다.

김사장의 안내로 계사 한동 한동을 둘러보면서 머리를 스치는 작은 느낌, 바로 방역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완전하게 소독해 놓은 계사가 껍이나 인상적이었다. 관리인 1인을 두고 부부가 직접 관리하여 한마리의 폐사도 아쉬워할 정도로 정성과 열의를 쏟고 있었고, 이 점이 바로 다른 농장에서 볼 수 없는 사료효율 1.87를 이룰 수 있게 하지 않느냐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축산업계에서 비교적 양계분야는 외국의 시설 설비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사양기술면에서는 외국의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설의 낙후가 생산성 향상에 저해되는 요인중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근래 채란업계에 서는 산란율 90%를 10~14주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양기술관리가 많이 향상되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브로일러에서는 사양기술의 발전으로 사료효율의 개선과 출하일령을 단축시키고 있으나, 사료효율 1.87은 브로일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는 경이적인 수치다.



그런데 기자는 김사장이 D약품상사의 수입완제품인 생균제제를 사료에 첨가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난 4월 25일 H부화장에서 3,100수를 입식하여 육성을 4주령에 99.4%와 출하일령 44일령에 98%로 평균체중이 1.5kg으로 사료요구율은(2.81/1.5) 1.87kg이다.

일반적으로 육용계 C.C에서 사료요구율은 닭의 품종, 사료의 질, 출하일령, 관리 등에 따라 크게 변하게 되지만 보통 2.0~2.2가 되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고, 관리의 부실, 환경이 부적합할 때 2.4 이상을 기록하는 농장도 많음에 비추어, 김사장 농장의 경우 1.87은 어려운 업계의 상황에서 비교적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수 있

을 것이다.

사료효율 0.1% 향상은 국내 사료 10.8 톤을 절약할수 있으므로 농장은 물론 업계차원에서도 커다란 이익이 아닐수 없다.

또한 브로일러사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입추 및 출하시기를 잘 맞추는 것 못지 않게 사료 구입시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요령도 수익을 늘리고 안정적인 기반에서 경영할수 있어 생산원가를 절약할수 있는 요소로 보여진다.

생균제제

기자는 D동물약품상사에서 판매하는 생균제제를 알아보기 위해 C사의 ○상무를 찾았다.

생균제제는 약품이 아니고 식품에 속하는 유산균제제로 약품처럼 화학적 방법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제품이 아니고 동물의 소화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스트렙토 코커스, 파시움, 씨넬68등 세가지의 유산균과 동물의 식욕을 늘려주는 기호성 향미제가 가미된 사료첨가제라고 한다.

보통 유산균은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여 냉장해야 하지만 동제품은 특수공법으로 냉동건조시킨 생균으로 고안된 축산용 제품으로 동물체내에서 장내 병원성세균과 이상발효를 일으키는 부패균의 증식억제, 사멸하여 설사를 예방, 소화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미지성장인자와 비타민 B.K같은 영양소를 생산하고 증식과정중에 생성되는 부산물에 소화효소가 대량 함유되어 있어 섭취한 사료의 소화흡수율을 높이고 설사를 예방하여 준다. 동제품을 섭취하면 다음날

표.

입 추 일	입식수수	육 성 율 (4주)%	출 하 율	출하일령	출 하 수	수당평균 체중(kg)	총 중 량 (kg)	사료효율 (kg)
84. 12. 20	3,300	98.2	95.3	46	3,144	1.2	3,772.8	2.18
85. 2. 4	3,100	98	97	42	3,017	1.13	3,409	2.0
85. 3. 2	3,000	98.7	97	45	2,910	1.51	4,394	1.92
85. 3. 14	3,000	97	95	43	2,866	1.33	3,812	2.06
85. 4. 25	3,100	99.4	98	44	3,038	1.5	4,557	1.87



부터 계분전체가 매우 건조한 상태로 배설되는 것을 명확히 관찰할 수 있다 한다.

반드시 추천량만 쓰고 그이상 쓰면 사료효율이 떨어진다고 강조하면서 브로일러에서 사료효율 0.2정도 낮출 수 있으며 전기사료에 톤당 휘드메이트 900g, 후기사료에 톤당 450g을 사용하며 채란계에서는 톤당 450g을 섞어서 급여하면 좋은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학씨의 어제와 오늘

20여년전 현 강남구 내곡동에서 벼농사와 부업으로 양계를 시작하여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정보관계를 갖고 벼다수확 재배에 도전, 좋은 성적을 올릴 만큼 근면 성실하고 관찰하고 끈기 있는 성격으로 흙과 노동의 신비를 일깨워 땅은 거짓이 없음을 믿고 살아온 김사장은 성남으로 이전, 본격적으로 양계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후 성남시의 간이계사 철거로 1년 쉬었다가 현 농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업을 하는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술과 성실성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술 외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부화장, 사료공장, 동물약품 등 세 일즈맨을 전부 장사치로 보았지만 이번 D 약품 상사의 P씨의 끈질긴 설득이 아마도 오늘과 같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 귀뜸을 해주기도 했다.

아직도 사료, 부화장의 기술지도와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해주시고 점차 완전계사로 탈바꿈하여 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오늘도 닭과 함께 하고 있다.

현재 그는 작년부터 사양관리일지를 꼬박꼬박 기록하여 수지계산은 물론 경영에 참여하는 습관을 기르고, 좀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얻기 위해 각종 잡지와 서적을 구독하는 등 열의에 가득차 있었다. (閉)

〈본문 기사 광고〉

과학사료, 의장등록한 용기. 타사 사용을 양해

동물약품업계에 자그마한 미담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동물약품으로는 드물게 포장용기(제품명 「비고솔」)의 고유모델을 개발, 사양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의장등록까지 한바 있는 과학사료는 비슷한 제품을 시판하면서 같은 모델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E사의 요청에, 이를 양해하기로 했다.

어려운 결심을 하는 자리에서 과학사료 신정재사장은 "비슷한 제품이다 같은 포장 용기 사용으로 다소간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업계가 불황인 이때에 「상호 협조하는 동반자적인

정신」으로 양해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결정이 포장뿐 아니라 제품품질향상에도 기여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사는 사양가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사실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